

# 풍월주의 임명과 퇴임\*

李 鍾 旭\*\*

- I. 머리말
- II. 화랑 세습가문의 존재
- III. 풍월주의 임명
- IV. 풍월주의 나이와 재임기간
- V. 풍월주의 퇴임
- VI. 맺음말

## I. 머리말

풍월주는 신라 화랑 중 대표 화랑이었다. 화랑도에는 여러 명의 화랑들이 있었고 그들이 낭도들을 거느렸다. 화랑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우두머리 화랑으로 풍월주를 임명하였다. 『화랑세기』를 통하여 풍월주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화랑 중의 화랑인 풍월주의 임명과 퇴임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37년(576)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화랑세기』에 따르면 진흥왕의 즉위와 동시에 섭정을 한 지소태후가 원화를 폐지시키고 풍월주를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에도 원화제가 부활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는 풍월주

\*본고는 1999년도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를 비롯한 화랑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랑세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풍월주의 임명과 퇴임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화랑세기』에는 540년에 임명되었던 1세 풍월주 위화랑부터 681년 화랑도를 폐할 때의 32세 풍월주 신공에 이르기까지 32명의 풍월주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들 풍월주들의 임명과 퇴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밝히기로 한다. 첫째, 풍월주들의 가문을 보기로 한다. 둘째, 풍월주의 임명에 대한 문제로 임명세력, 임명시기, 임명이유, 임명배경을 보기로 한다. 셋째, 풍월주의 나이와 재임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넷째, 풍월주의 퇴임이유와 퇴임을 명한 세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풍월주의 실체 중 한 부분을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화랑 세습가문의 존재

풍월주의 임명과 퇴임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어떠한 가문 출신 인물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정리하기로 한다. 우선 1세 위화랑(540-?)-4세 이화랑(555-?)-12세 보리공(591-596)-20세 예원공(632-634)-28세 오기공(662-664)을 주목할 수 있다. 위화랑의 가계에서 한 세대에 한 명씩의 풍월주가 임명되었다. 12세 보리공 조에는 그의 누이들이 진평왕을 섬겨 총애를 받았으므로 조정에서 공을 중용하고자 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우리 집은 화랑을 세습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시 무엇 때문에 관리가 되겠는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화랑을 세습하는 가문이 있었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들 화랑세습 가문

에서 풍월주들이 나온 것이 확인된다.

『화랑세기』에는 부자가 풍월주를 지낸 예들이 나오고 있다. 2세 미진부-10세 미생랑, 6세 세종-11세 하종, 7세 설화랑-16세 보종공, 13세 용춘공-18세 춘추공, 17세 염장공-25세 춘장공, 19세 흠순공-29세 원선공, 23세 군관공-30세 천관공, 26세 진공-32세 신공, 27세 흠돌-31세 흠언은 모두 부자간이었다. 아홉 경우 18명의 풍월주가 해당된다. 이들은 위화랑계통과는 달리 부자들이 풍월주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 된다.

32명의 풍월주 중 23명이 적어도 부자관계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나머지 9명의 풍월주들도 그들의 아버지나 아들들이 풍월주를 지내지는 않았으나 화랑을 지낸 예들이 찾아진다. 실제로 15세 유신공의 아버지 서현은 비록 풍월주는 되지 못하였으나 12세 보리공의 부제로 되었다가 그 지위를 용춘공에게 양보한 바 있다. 이는 풍월주들이 화랑들을 배출한 가문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풍월주들은 원화와의 관계에서 임명되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1세 하종은 원화를 지냈던 미실의 아들이었다.<sup>1)</sup> 하종은 6세 풍월주 세종과 원화를 지낸 미실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하종은 세종의 아들로서 풍월주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미실의 아들로서 못 화랑들과는 다르다는 말을 통하여 미실의 아들로서 풍월주가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은 16세 보종공도 마찬가지였다. 보종공은 7세 풍월주 설화랑과 미실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보종공은 하종과 같이 미실의 아들로서 풍월주가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풍월주들은 왕실세력들과 혈연 또는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풍월주들이 얼마 안 되는 신라 최고 지배세력들 중에서 나온 것을 잘 보여준다. 3세 모랑공은 법흥왕의 아들이고 13세

1) 『화랑세기』 11세 하종, 1999, p. 131.

용춘공은 진지왕의 아들이었다. 6세 세종은 지소태후의 아들이었고, 17세 염장공은 지도태후의 아들이었다. 14세 호림공은 송화공주의 아들이었고, 28세 오기공은 우야공주의 아들이었다. 4세 이화랑의 부인은 숙명공주였고, 13세 용춘공의 부인은 천명공주였다.

풍월주들은 부자관계, 왕실과의 혈연·인척관계에서 배출된 것이 확인된다. 그 중 위화랑계의 풍월주들은 화랑세습가문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풍월주들은 풍월주 세습가문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부자간에 풍월주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왕실세력과의 관계를 통하여 풍월주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면 어떨까 한다.

### Ⅲ. 풍월주의 임명

풍월주의 임명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누가 풍월주를 임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화랑세기』를 보면 풍월주를 임명한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왕실의 여자들을 주목할 수 있다. 그 중 먼저 지소태후가 있다. 1세 위화랑은 원화를 폐지하고 풍월주를 설치한 지소태후가 임명하였다. 그 후 2세 미진부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3세 모랑, 4세 이화랑까지는 지소태후의 명으로 임명한 바 있다. 5세 사다함은 지소태후에게 인정을 받아 귀당비장이 될 수 있었다. 사다함은 이화랑의 부제로서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받았다. 6세 세종은 사다함의 유언으로 지소태후의 허락을 받아 풍월주가 되었다. 따라서 1세 위화랑에서 6세 세종까지의 풍월주는 지소태후의 명이나 허락을 받아 임명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미실을 들 수 있다. 미실은 2세 미진부공과 묘도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묘도는 1세 풍월주 위화랑의 딸인 옥진과 영실 사이에서 출

생하였다. 미실은 진흥왕에게 색공을 하여 총애를 받았고, 황후궁 전주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 후 동륜태자, 진지왕, 진평왕을 모시기도 하였다. 미실은 6세 세종에게 권하여 부제 설원랑(설화랑)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주게 하였다. 미실은 다시 설원랑에게 명하여 문노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주게 하였다. 9세 비보랑은 문노가 지위를 물려준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비보랑의 할머니이며 미실의 외할머니는 옥진이었다. 따라서 미실과 비보랑은 먼 관계가 아니었다. 실제로 미실은 비보랑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가 추천한 보리공·서현공·용춘공 등 많은 사람을 뽑았다고 한다.<sup>2)</sup>

11세 하종공은 미생랑의 부제로서 풍월주가 되었다. 그런데 하종을 미생의 부제로 삼은 것은 미실이었다. 따라서 하종이 풍월주가 된 것도 결국 미실의 힘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12세 보리공과 13세 용춘공은 9세 비보랑이 추천하여 미실이 뽑아준 화랑들이었다. 따라서 보리공과 용춘공의 풍월주 지위 획득도 미실의 영향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하종에게 미실이 명하여 보리공을 풍월주로 삼기도 하였다. 15세 유신공이 14세 호림공의 부제 지위를 보종공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미실이 만호태후를 위로하기 위한 때문이었다. 유신공은 부제의 지위로서 15세 풍월주가 될 수 있었다. 16세 보종공은 유신공이 그 지위를 물려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보종공은 7세 설화랑과 미실 사이에서 태어났다. 결국 7세 설화랑에서 16세 보종공까지의 풍월주들은 미실에 의하여 또는 그 영향으로 풍월주가 된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문노의 명으로 풍월주가 임명된 것도 볼 수 있다. 9세 비보랑은 문노가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주었다. 문노는 9세 비보랑에게 명하여 미생을 10세 풍월주로 삼았다.

2) 『화랑세기』 9세 비보랑, 1999, p. 109.

한편 부제를 풍월주로 임명하는 일이 전개된 것도 주목할 수 있다. 지소태후나 미실이 풍월주의 임명을 명할 때도 아무나 풍월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제를 임명한 것이 주목된다. 12세 보리공은 그의 부제 용춘공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주었다. 13세 용춘공은 14세 호림공을 부제로 발탁하여 지위를 물려주었다. 15세 유신공은 14세 호림공의 부제 보종공이 지위를 양보하여 호림공이 그 지위를 넘겨주었다. 15세 유신공은 보종공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주었다.

풍월주의 지위를 계승하는데 있어 부제의 지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1세 위화랑, 6세 세종, (7세 설원랑), 8세 문노, (10세 미생), (16세 보종공), 28세 오기공 등이다. 그 중 위화랑은 1세 풍월주이기에 부제를 거칠 수 없었다. 6세 세종은 5세 사다함의 유언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7세 설원랑은 5세 사다함의 부제였으나 세종의 뒤를 이어 풍월주가 되었다. 8세 문노는 국선으로서 풍월주와 계통은 달랐으나 미실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미생은 7세 설화랑의 부제였고, 16세 보종은 14세 호림공의 부제였으나 유신공에게 부제의 지위를 양보한 바 있다. 한편 4세 이화랑은 3세 모랑의 부제였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렇더라도 부제를 거치지 않고 풍월주가 된 예는 많지 않았다.

한편 부제로서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받지 못한 예도 있었다. 9세 비보랑의 부제는 미생랑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물려받지 못하였다. 누가 부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문노가 비보랑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미생랑에게 물려주도록 명하였다. 부제로서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받지 못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음은 풍월주 임명 이유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른 시기의 풍월주들은 지소태후나 미실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 임명된 바 있다. 1세 위화랑은 진흥을 태자로 삼도록 만들어 주었기에 지소태후가 풍월주로

임명하였다. 2세 미진부, 3세 모랑, 4세 이화랑은 지소태후의 총애를 받아 풍월주가 되었다. 그리고 5세 사다함은 이화랑의 부제로서 풍월주가 되었다. 6세 세종은 사다함의 유언으로 임명되었다. 7세 설원랑은 미실과 상통을 하였기에 임명되었다. 8세 문노는 미실의 총애를 받아 임명되었다. 11세 하종은 미실이 미생의 부제로 삼도록 하여 임명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풍월주의 지위는 풍월주가 부제에게 전하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13세 용춘공은 보리공의 부제가 되어 풍월주의 지위를 전해받았다. 14세 호림공은 용춘공이 부제로 발탁하여 그 지위를 물려주었다.

그런데 풍월주의 지위를 물러난 상선들이 풍월주의 임명에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세 미생의 임명에는 8세 문노의 명령이 작용하였다. 18세 춘추공의 임명에는 15세 유신이 흠순공에게 그 지위를 양보하도록 하였다. 28세 오기공의 임명은 흠들에 의한 것이었다.

상선들의 영향력 행사는 풍월주의 임명뿐 아니라 부제를 임명하는 데에도 작용하였다. 22세 양도공은 20세 예원의 명으로 21세 선품공의 부제가 되었다. 24세 천광공은 22세 양도공이 23세 군관공의 부제로 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상선들이 부제의 임명에 관여하여 부제들이 풍월주가 되도록 만든 것은 상선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풍월주에 임명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무엇이었나 보도록 한다.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용모를 주목할 수 있다. 1세 위화랑은 얼굴이 백옥같고, 입술은 마치 붉은 연지와 같았고,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를 가졌는데, 말이 떨어지면 바람이 일었다고 한다.<sup>3)</sup> 2세 미진부는 모습이 아름답고 재주가 많았다고 한다.<sup>4)</sup> 3세 이화랑은 피부가 옥과 같이 부드럽고, 눈은 미소짓는 꽃과 같고, 음울과 문장을 잘하였다고 한다. 12살에 능히 모랑공의 부제가 되었고 지소태후가 매

3) 『화랑세기』 1세 위화랑, 1999, pp. 48-49.

4) 『화랑세기』 2세 미진부, 1999, p. 53.

우 사랑하였다고 한다. 그 때 황화, 숙명, 송화 공주가 모두 공을 따랐다고 한다.<sup>5)</sup> 10세 미생랑의 용모가 수려하고 말에 운치가 있었다고 한다. 그가 남도에 갈 때마다 유화로서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는 자가 천백을 해야겠다고 한다. 이와 같이 풍월주들 중에는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둘째, 풍월주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능력을 들 수 있다. 11세 하종은 15살에 화랑에 들어가 역사를 토함공에게, 노래를 이화공에게, 검술을 문노에게, 춤을 미생공에게 배워 정수를 얻었다고 한다.<sup>6)</sup> 풍월주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능력은 다양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 중 격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 중 문노의 격점을 잘 하였다. 4세 이화랑 조에는 비조공의 아들 문노 또한 호걸로 격점을 잘하였는데 이화랑이 사다함으로 하여금 문노에게 검을 배우게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sup>7)</sup> 문노는 5세 사다함, 9세 비보랑,<sup>8)</sup> 11세 하종에게 검을 가르친 것을 볼 수 있다. 13세 용춘공 또한 문노의 문하에 들어가 비보랑을 형으로 섬기고 서제 비형랑과 함께 힘써 남도를 모았다고 한다.<sup>9)</sup> 14세 호림공은 용력이 많고 격점을 좋아하여 일찍이 문노의 문하에 들어갔다고 한다.<sup>10)</sup> 『화랑세기』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문노는 격점에 능하였고 그것을 화랑들에게 가르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10세 풍월주 미생은 격점을 좋아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12살의 나이로 사다함의 남도가 되었을 때 말에 오를 수 없었다. 이에 문노가 무릇 남도가 말에 오르지 못하고 검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루아침

5) 『화랑세기』 4세 이화랑, 1999, p. 57.

6) 『화랑세기』 11세 하종, 1999, p. 128.

7) 『화랑세기』 4세 이화랑, 1999, p. 60.

8) 『화랑세기』 9세 비보랑, 1999, p. 106.

9) 『화랑세기』 13세 용춘공, 1999, p. 142.

10) 『화랑세기』 14세 호림공, 1999, p. 151.

에 일이 생기면 어디에 쓸 것인가 하고 꾸짖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다함이 말하기를 미생은 얼굴이 아름답고 춤을 잘 추어 여러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였다.<sup>11)</sup> 풍월주에 따라 재능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다.

풍월주들의 성품도 주목할 수 있다. 8세 문노는 격검을 잘하고 의기를 좋아하였으며 용맹하고 문장에 능하였다고 한다. 10세 미생은 부귀하게 나고 자라 아랫사람의 마음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선문에 있어 낭도들을 문하에서 배출하였으므로 감히 배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sup>12)</sup> 12세 보리공은 청렴결백하고 지조를 지켰으며, 재물을 낭도들에게 나누어주어 낭도들이 우러러보기를 부모같이 하였다고 한다. 무릇 근심과 재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과 낭주는 함께 가서 위로하고 구호하여 주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이 두 성인이 순행하여 다스리는 것에 비교하였다고 한다.<sup>13)</sup> 22세 양도공의 성품은 사람 섬기기를 잘하고 일의 추이에 밝았다고 한다. 상선들에게 몸을 굽혀 존경을 표할 때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재물을 떠는 것 같아서 윗사람들의 기분을 다 맞추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은 사랑하고 미워함이 심히 치우쳐 마음속에 성이 나면 종신토록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sup>14)</sup> 몇 명 풍월주들의 성품에 대한 기록을 보았는데, 일정한 틀은 없었다. 아랫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보리공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성품을 가진 미생랑, 양도공이 찾아진다. 풍월주의 임명은 성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제를 거쳐 거의 자동적으로 풍월주가 된 것을 주목

11) 『화랑세기』 10세 미생랑, 1999, pp. 112-113.

12) 『화랑세기』 10세 미생랑, 1999, p. 115.

13) 『화랑세기』 12세 보리공, 1999, p. 137.

14) 『화랑세기』 22세 양도공, 1999, p. 189, p. 197.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화랑도가 사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사실을 찾을 수 있다. 문노를 예로 들기로 한다. 문노는 가야파의 무리를 거느렸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4세 이화랑이 문노를 5세 사다함의 스승으로 삼고 낭도로 하여금 공경하여 받들도록 하였다.<sup>15)</sup> 그런가 하면 6세 세종도 풍월주가 되자 친히 문노의 집을 찾아 문노에게 감히 신하로 삼을 수 없으니 형이 되어 도와 달라고 하였다.<sup>16)</sup> 문노는 7세 설화랑에게 도맥으로는 스승이었고 통맥으로는 아우였던 것을 볼 수 있다.<sup>17)</sup> 9세 비보랑은 문노에게 나아가 검을 배우고 뛰어난 제자가 되어 문노를 보좌하였다고 한다. 그 공으로 문노의 부제가 되었고 9세 풍월주가 되었다. 10세 미생랑의 시기에 화랑도가 5개의 파로 갈린 바 있다. 그 중 첫 번째 파인 통합원류에는 문노파 중 최정예들이 속하였고, 세 번째 파에는 진골정통을 받들려는 자들이 속하여 지소태후의 명을 받들었다. 네 번째 파는 문노정파와 통합파 중 혼성된 자들이라고 한다.<sup>18)</sup> 문노의 일파들이 이와 같이 5개의 파에 속한 것은 흥미롭다. 13세 용춘공은 문노의 문하에 들어가 비보랑을 형으로 섬긴 것으로 나오고 있다.<sup>19)</sup> 문노는 579년에서 582년까지 풍월주로 있었다. 용춘공은 596년에서 603년까지 풍월주로 있었다. 문노는 538년에 출생하여 606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김흠운은 어려서 문노지문(文弩之門)에 승려 전밀 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sup>20)</sup> 그 후 흠운은 655년 백제 공격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문노의 나이와 김흠운의 나이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런데 흠운을 문노지문이었다고 한

15) 『화랑세기』 8세 문노, 1999, p. 95.

16) 『화랑세기』 8세 문노, 1999, p. 96.

17) 『화랑세기』 7세 설화랑, 1999, p. 87.

18) 『화랑세기』 10세 미생랑, 1999, p. 114.

19) 『화랑세기』 13세 용춘공, 1999, p. 142.

20) 『삼국사기』 47, 열전 7, 김흠운 전.

것은 무슨 까닭인가 궁금하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문노가 풍월주를 물러난 후 또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문노를 받들던 집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은 아닐까 짐작이 간다.

이와 같은 관계는 11세 하종과 12세 보리공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리공은 그의 형 원광의 말을 따라 화랑이 되기로 하고, 하종공의 문하에 나아가 그 낭도에 소속되었다. 585년 보리공의 13살 때 하종공이 우방대화랑이 되자 우방화랑이 되었다. 588년에 하종공이 풍월주가 되자 보리공을 부제로 삼았다. 여기서 보리공이 하종의 밑에서 우방화랑, 부제를 거쳐 12세 풍월주가 된 것을 볼 수 있다.<sup>21)</sup> 이와 같은 예들은 더 찾아진다. 결국 풍월주가 되는 방법은 일찍부터 맺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풍월주로 임명되기 위한 조건으로 골품신분도 들 수 있다. 『화랑세기』에는 풍월주의 신분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단지 8세 문노 조에는 문노가 진지왕을 폐립하는 데 참여한 공으로 아찬으로 진급하였고 비로소 미실에게 총애를 받아 선화의 위를 얻게 되었다고 나오고 있다.<sup>22)</sup> 문노는 관위가 아찬에 이르러 비로소 골품을 얻었다(得骨品)고 한다.<sup>23)</sup> 문노가 골품을 얻었다는 것은 진골이 된 것을 의미한다. 문노가 진골이 된 것은 아찬의 관위를 갖게 된 때문이다. 여하튼 문노는 진골의 신분을 갖게 되어 풍월주가 될 수 있었다.

신라의 풍월주는 일반적으로 그 신분이 진골이었다고 여겨진다. 7세 풍월주 설화랑은 설씨 성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6두품이어야 하였다. 그런데 설화랑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을 따라(從母姓) 설씨를 칭하였다.<sup>24)</sup> 그러한 사실은 신라인들이

21) 『화랑세기』 12세 보리공, 1999, pp. 133-136.

22) 『화랑세기』 8세 문노, 1999, p. 97.

23) 『화랑세기』 8세 문노, 1999, p. 101.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설화랑의 신분은 진골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설원랑은 출신이 한미하여 낭도들이 받들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미실이 임금의 총애로써 호령하여 낭도들을 예속시켰고 드디어 7세 풍월주로 삼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32명의 풍월주 중에는 진골이 아닌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간다. 화랑도의 운용에서 풍월주를 비롯한 화랑의 지위는 진골이 차지하였으나 때로는 설화랑과 같이 한미한 신분을 가진 자가 풍월주가 되기도 하였다. 설화랑은 왕의 총애를 받던 미실에 의하여 풍월주가 될 수 있었다.

문노가 아찬이 되어 득골품한 사실은 골품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주고 있다. 당시 신라인들이 모두 골품제의 특정 신분으로 편입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골품신분을 갖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 골품제에 대한 새로운 면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골품이 있는 사람들은 설화랑의 무리를 많이 따랐고, 초택의 사람들은 문노의 무리를 많이 따랐다고 한 것<sup>25)</sup>도 흥미롭다.

다음은 풍월주의 임명과 파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화랑세기』의 저술목적 중의 하나가 파맥의 정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었다. 당시 신라에는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이라는 계통이 있었다.<sup>26)</sup> 거기에 더하여 가야파가 있었다. 그런데 10세 미생랑 조에는 이와 같은 파들이 얽히고 설켜어 5개의 파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여하튼 풍월주의 임명에 이와 같은 파가 작용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11세 하종 조

24) 『화랑세기』 7세 설화랑, 1999, p. 90.

25) 『화랑세기』 7세 설화랑, 1999, p. 86.

26) 이종욱, 「『화랑세기』에 나타난 진골정통과 대원신통」, 『韓國上古史學報』, 1995, pp. 279-302.

에 그러한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하중은 미실의 아들이었기에 대원신통이었다. 문노파가 불복하였기에 미실은 화합토록 하기 위하여 이화공의 아들 보리공을 부제로 삼았다. 그런데 보리공의 어머니가 숙명공주였기에 보리공은 진골정통이었다. 당시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은 서로 뒤섞이어 풍월주가 되는 사람은 각기 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바라는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비록 화합은 하나 안으로는 서로 반목하여 봉당이 더욱 심하였다고 한다. 당시 주형과 부제가 파가 달라 점차 보리공을 몰아내려고 하였다. 이에 하중은 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풍월주의 지위를 보리공에게 물려주었다.

이 때 미실은 이화랑이 풍월주가 되려고 한다고 걱정을 하였다. 사도태후는 낭도대회를 열어 각파를 화합시키도록 하였고, 불복하는 자들을 등용하여 진정시켰다. 이에 가야파가 점차 다시 세력을 갖게 되어 서현랑을 전방화랑으로 삼았다. 서현랑은 대원신통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이화파 · 미실파 · 가야파가 단결을 하였다고 한다.<sup>27)</sup>

진골정통은 보미로부터 시작하여 지소태후를 종으로 삼았다. 대원신통은 보미로부터 시작하여 사도태후를 종으로 삼았다고 한다.<sup>28)</sup>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은 모계계승에 의하여 이어졌다. 그 계승원리는 부계계승을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남자들은 한 대에 한하여 어머니의 계통을 이었다. 그와는 달리 가야파는 부계계승에 의하여 이어졌다. 따라서 서현은 모계를 따라 대원신통이었고 부계를 따라 가야파가 되었다. 그러한 사정은 김유신과 그의 동생 흠순도 마찬가지였다.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은 진골정통이었던 만호의 딸이었다. 만호는 지소의 딸이었기에 진골정통이었다. 이 경우 진골정통 유신은 대원신통인 아버지 서현과는 파가 달랐다. 그러나 유신은 서현 때문에 가야

27) 『화랑세기』 11세 하중, 1999, pp. 129-130.

28) 『화랑세기』 11세 하중, 1999, p. 128.

과가 되었다.

진골정통·대원신통·가야과와 같은 과는 풍월주의 임명에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IV. 풍월주의 나이와 재임기간

10세 미생랑 조에는 공이 36살의 나이로 풍월주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 때 미생랑은 말하기를 사다함공이 열 여섯 살에 풍월주가 되자 천하가 명예롭게 여겼는데, 자기는 열세 살에 전방화랑이 되자, 천하가 명예롭게 여겨 나이 열 여섯 살 이전에 반드시 풍월주가 된다고 하였고 하였다. 어찌 서른 여섯 살에 된다고 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사다함이 열 여섯에 풍월주가 된 것은 영광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른 여섯의 나이로 풍월주가 된 것이다.

풍월주가 되는 나이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5세 사다함은 16살, 7세 설화랑은 24살, 8세 문노는 30살, 9세 비보랑은 34살, 10세 미생은 36살, 11세 하종공은 25살, 12세 보리공은 18살, 13세 용춘공은 19살, 14세 호림공은 25살, 15세 유신공은 18살, 17세 염장공은 36살, 18세 춘추공은 24살, 19세 흠순공은 31살, 26세 진공은 31살, 27세 흠돌은 30살, 28세 오기공은 30살, 29세 원선은 35살, 30세 천관은 29살, 31세 흠언은 30살에 풍월주가 되었다.

32명 중 풍월주가 된 나이를 알 수 있는 것은 19명이다. 그 중 10대에 풍월주가 된 사람은 4명이었다. 20대는 5명, 30대는 10명이었다. 10대에 풍월주가 된 사람은 15세 유신공이 마지막이었다. 20대에 풍월주가 된 사람은 30세 천관을 제하면 18세 춘추공이 마지막이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풍월주의 나이가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30세 천관은 8년간 풍월주로 있었기에 재임기간의 대부분은 30대였다.

여기서 풍월주의 나이가 시간이 지나며 높아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문왕 원년(681) 흠들의 반란에 연관된 사람들을 보면 진공은 31살, 흠들 자신은 30살, 그 아들 흠언은 30살, 32세 신공은 30살에 풍월주가 되었다. 그들은 30살이 넘어 풍월주의 지위에 있으며 낭도들을 장악하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낭도들은 30살이 되면 그 지위를 물러나게 되어 있었다. 낭도들은 23·4살이 되면 대도가 되었고, 30살이 되면 병부에 속하거나 농공에 종사하는 일로 돌아가거나 향리의 장이 되었다고 한다.<sup>29)</sup> 여기서 풍월주들은 낭도와는 달리 30살이 넘어 그 지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풍월주의 재임기간을 보면 14세 호림공(603-612)은 햇수로 10년을 재임하였고 3세 모랑(548-555), 6세 세종(561-568), 7세 설화랑(572-579), 13세 용춘공(596-603), 30세 천관(667-674)은 햇수로 8년을 재임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4세 이화랑(555-561), 27세 흠들(656-662)은 햇수로 7년, 12세 보리공(591-596), 17세 염장공(621-626), 25세 춘장(647-652)은 햇수로 6년을 재임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24세 천광공(643-647), 26세 진공(652-656), 31세 흠언(674-678)은 햇수로 5년을 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8세 문노(579-582), 9세 비보랑(582-585), 10세 미생랑(585-588), 11세 하종(588-591), 18세 춘추공(626-629), 19세 흠순공(629-632), 21세 선품공(634-637), 22세 양도공(637-640), 29세 원선(664-667), 32세 신공(678-681)은 햇수로 4년을 재임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20세 에원공(632-634)과 28세 오기공(662-664)은 햇수로 3년을 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1세 위화랑과 미진부는 9년(540-548)을 재

29) 『화랑세기』 22세 양도공, 1999, p. 193.

임하였고, 4세 이화랑과 5세 사다함은 7년(555-561)을 재임하였고, 15세 유신공과 16세 보종공은 10년(612-621)을 재임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풍월주의 재임기간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풍월주의 임기에 대해서 당시 신라인들이 생각하는 재임기간은 대체로 3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사정은 11세 하종 조에 나오는 기록으로 확인된다.

(하종은) 3년간 재위하다가 보리공에게 양보하며 말하기를 ‘선대의 풍월주들이 큰 성인인데도 오히려 3년간 재위하였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오래 머물겠는가’ 하였다. 이에 보리공이 ‘주형은 미실 원화의 아들인데, 어찌 못 화랑들과 더불어 같은 예로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공이 굳이 사양하였다.<sup>30)</sup>

위의 기록을 통하여 풍월주의 임기가 3년이었던 사실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체는 풍월주의 임기가 3년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정은 풍월주의 실제 임기를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여기서 10세 미생은 585년에 풍월주가 되어 588년에 그 지위를 물러났기에 햇수로는 4년이 되나 『화랑세기』에는 3년 동안 풍월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sup>31)</sup> 11세 하종도 588년에 풍월주가 되어 591년에 퇴임하여 햇수로는 4년을 재임한 것으로 되나 실체는 위의 기록과 같이 3년간 재임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풍월주의 재임기간은 햇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재임한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화랑세기』의 자료로는 실제 재임기간을 확인하기 어렵다. 햇수로 4년을 재임한 10명의 풍월주들은 3년 임기를 채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사정은 20세 예원공과 28세 오기공도 마찬가지였다고 짐작이 간다.

30) 『화랑세기』 11세 하종, 1999, p. 131.

31) 『화랑세기』 10세 미생량, 1999, p. 114.

## V. 풍월주의 퇴임

『화랑세기』에 나오는 32명의 풍월주들은 일정 기간을 재위한 후에는 모두 퇴임을 하였다. 퇴임 이유는 같은 것은 아니었다. 3세 모랑과 5세 사다함은 풍월주로 재위하는 중 죽었다. 그런가 하면 2세 미진부는 지소태후의 총애가 줄어들자 낭도들과 전쟁에 나가며 풍월주의 지위를 모랑에게 물려주었다. 4세 이화랑은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아 낭도에 대하여 싫증이 났으므로 사다함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주었다.<sup>32)</sup> 풍월주의 퇴임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풍월주의 퇴임이유를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3세 모랑과 5세 사다함과 같이 풍월주로 재임하는 중 죽은 경우가 있다. 둘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물러나는 예를 들 수 있다. 2세 미진부와 4세 이화랑의 퇴임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누군인가의 명에 의하여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7세 설화랑과 11세 하종은 미실의 명으로 물러났다. 9세 비보랑은 문노의 명으로 물러났다. 17세 염장공은 유신의 명으로 물러났다. 6세 세종은 미실이 원화가 되자 낭도를 모두 해산하고 풍월주의 지위를 물러난 것을 알 수 있다.<sup>33)</sup> 후에 미실이 원화의 자리를 물러나자 세종이 다시 풍월주가 되고자 하였으나 미실이 권하여 설화랑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10세 미생랑은 3년 동안 풍월주의 지위에 있었는데 의론이 일치하지 않아 상선들이 많이 걱정하였다고 한다. 이에 하종공에게 양위를 하고 물러나 천성을 길렀다고 한다. 이는 누구의 명에 의하여 물러난 것은 아니

32) 『화랑세기』 5세 사다함, 1999, p. 69.

33) 『화랑세기』 6세 세종, 1999, p. 78.

지만 상선들의 영향에 의하여 양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넷째, 정부의 관직을 차지하게 되며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주는 예들이 있다. 2세 미진부는 지소태후의 총애가 줄어들자 몸을 나라에 바치기를 원하여 낭도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아가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4세 이화랑은 풍월주의 지위를 사다함에게 물려주고 토함공과 더불어 궁중에서 태자를 보양하는 데 힘썼다고 한다.<sup>34)</sup> 24세 천광공은 비담이 모반을 하자 낭도를 모두 동원하여 그 진을 돌격하였다. 비담이 패하여 달아나고 난이 평정되었다. 그 공으로 천광공은 발탁되어 호성장군이 되었다.<sup>35)</sup> 천광공은 호성장군이 되어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났다. 이는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빼어났고 훌륭한 장군과 용감한 병졸이 이로부터 나왔다는 『화랑세기』 서문의 기록이 타당한 것을 증명하여준다.

한편 32세 신공은 681년 김흠돌의 난으로 인하여 자의태후가 화랑도를 폐지하게 되며 그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다른 풍월주들의 퇴임과는 다른 이유로 물러난 것을 의미한다.

32명의 풍월주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 부제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보편적인 퇴임이유라고 할 수 있다. 모두는 아니나 부제는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받을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제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주고 퇴임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여겨진다.

풍월주의 자리를 퇴임하면 낭적에서 이름을 삭제하였다고 생각된다.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 조에는 낭적을 풍류환경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화랑과 낭도는 화랑도에 들어가면서 낭적에 이름을 올렸는데 풍월주를 퇴임하면 낭적에서 이름을 지웠던 것이 틀림없다.

34) 『화랑세기』 4세 이화랑, 1999, p. 60.

35) 『화랑세기』 24세 천광공, 1999, p. 209.

## VI. 맺음말

위에서 『화랑세기』에 나오는 풍월주의 임명과 퇴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풍월주의 세습가문의 존재를 알아 보았다. 1세 위화랑-4세 이화랑-12세 보리공-20세 예원공-28세 오기공(-김대문)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 외에도 9건의 부자관계를 찾을 수 있다. 그 밖의 9명의 풍월주들도 왕실세력이거나 태후 또는 공주의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풍월주의 임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세에서 6세 풍월주까지는 지소태후, 7세에서 16세까지는 미실의 명과 영향으로 임명된 것을 보았다. 그 후에는 상선들의 영향과 명에 의하여 풍월주가 임명되는 것을 보았다. 풍월주가 되기 위해서는 용모, 개인적 실력, 성품 등이 좋거나, 화랑도 안에서의 사적인 관계, 골품신분, 파맥 등이 있어야 하였다.

셋째, 풍월주는 16살에서부터 36살까지의 나이에 임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풍월주의 나이는 높아져 30대에 임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임 기간은 사다함과 같이 1년에서 호림공고 같이 10년까지로 다양하였다. 그러나 풍월주의 재임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넷째, 풍월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퇴임하였다. 사망으로 인한 퇴임,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한 퇴임,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임, 관직을 차지하게 되어 한 퇴임, 반란과 연루되어 한 퇴임 등을 들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풍월주의 지위는 대부분 부제들에게 물려주었다.